

# 제 58차 DAC 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제 28차 DAC 통계작업반 회의가 22개 회원국 및 옵저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 6.11~12 양일간 개최되었음

는 것을 골자로 함

## 2. DAC통계(집계통계)와 CRS통계(건별통계)의 통합(CRS++)

### I. 주요 내용

#### 1. 신규 원조형태 구분안

(New Classification of Type of Aid)

- 신규 원조형태의 구분 안은 기존의 DAC 테이블 1에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협력(TC), 긴급원조, 식량원조, NGO지원, 행정성경비, 개발인식증진비 등으로 나뉘던 것을 (A)프로젝트타입지원, (B)예산지원 및 현금이전, (C)인적교류협력[Exchange schemes], (D)소규모지식공유, (E)식량원조, (F)인도적지원, (G)부채탕감, (H)공여국내원조 등으로 재분류 하

- 통계사무국은 회원국들이 DAC통계(집계통계)와 CRS통계(건별통계)의 통합보고양식(CRS++)체제로 2006년도 실적을 보고하도록 권고함. 한국은 2006년 실적부터 통합보고 형식으로 9월말 이전 보고를 목표로 함

#### 3. ODA 계상가능 국제기구 및 INGO, PPP, Network

- ODA 계상가능 국제기구리스트에 UNITAID, IFFIm, BSEC외 다수 기구들이 추가되었으며 UNPKO에 대한 지원은 지원액 중 7%를 ODA로 계상할 수 있음. 한편, PBF에 대한 2006년

도 지원액은 예외적으로 전액 계상하되 양자 간 지원으로 보고

## II. 건의 사항

### 1. 파리선언 이행성과 설문조사

- 2006년 파리선언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선 설문조사에서 평가지표별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다수 회원국들의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설문 결과자료에서 한국은 34개국 중 3개국에서 전체 ODA 중 4%에 해당하는 지원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았는데 10개 항목 중 기술협력 관련지표를 제외 하고는 거의 모든 지표들에서 공여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치 달성(baseline)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2. 건별통계와 집계통계 통합보고(CRS++)

- 금년 2006년도의 ODA 지원실적에 대한 확정 통계 보고 시 한국은 최초로 통합보고체계(CRS++)로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관련기관 간 협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함. 현재 KOICA는 CRS++ 기준의 시스템 재구축 개발이 완료되었고 수출입은행의 ODA 통계보고시스템도 개선 중

### 3. ODA 통계 작성 교육 실시 필요

- DAC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 DAC 차원의 ODA 통계가 대국민의 ODA 이해 및 설득을 위해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는 원조정책 수립 및 평가 도구인 바, DAC가 적극 추진 중인 통합보고체계 도입 이후 정확한 정보 작성 및 주요 실적의 누락 방지를 위해 국내 각 부처 관련 기관 원조 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통계작성 교육이 긴요

## III. 상세 내용

### 1.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직에 벨기에 Mr. Geert Deserranno, 부의장직에 오스트리아의 Ms. Hedwig Riegler 및 일본의 Mr. Hitoshi Shoji 대표가 선출됨. 신임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ODA관련 규정결정, 원조의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통계작업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기동안 지금까지의 작업반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임을 언급

### 2. 의제승인

- 58차 통계작업반 회의의 의제가 원안 그대로 승인되었으며 의장은 OECD 주재 EC 대표인

Mr. Franco Gonzato를 소개하며 통계작업반 회의의 DAC facilitator로 참여하였음을 설명

### 3. 2007년 2월 통계작업반 비공식 회의록 승인

- 원조형태의 신규 분류 안, ODA 건별통계와 집계통계의 통합작업(CRS++) 및 양자/다자 보고 관련 통계작성지침 보완에 대한 협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이의 없이 승인하였으나 비공식 회의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음

### 4. 원조형태구분안(New Classification of Type of Aid) 검토

- 신규 원조형태의 구분은 기존의 DAC 테이블 1에서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술협력(TC), 긴급원조, 식량원조, NGO지원, 행정성 경비, 개발인식증진비 등으로 나뉘던 것을 (A)프로젝트타입지원, (B)예산지원 및 현금이전, (C)인적교류협력[Exchange schemes], (D)소규모 지식공유, (E)식량원조, (F)인도적지원, (G)부채탕감, (H)공여국내원조 등으로 재분류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사무국은 2월회의의 결과에 따라 덴마크와 영국 및 핀란드의 2006년 실적에 신규 원조형태 분류 안을 적용해 본 결과 몇 가지 정의의 불명확성을 보완하면 현행 원조형태 분류기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함. 10월과 11월 이전까지 몇 회원국들의 2006년 실적에 대한 테스트 참여 및 이후 각 원조형태 항목에 대한 설명자료 초안 작성 작업을 2008년 1월까지 마쳐서 2008년 2월이나 3월 중에 있을 비공식회의에서 최종 정리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을 밝힘

- GOVNET의 담당자는 신규 분류 안이 파리선언의 맥락에서 역량개발과 관련된 기술협력 부문의 실적을 상제 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당 분야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질 것임을 언급하며 신규 분류작업의 중요성을 강조

- 테스트 국가로 참여했던 덴마크는 2006년 실적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적용 가능해 보였으나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경우 분류안의 항목 중 어디로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국제수지관련 정보는 하위 분류안과 국제수지 구분 값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고함. 그러나 원조형태의 재분류 작업의 중요성과 파리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임을 지적하고 세부 정의의 명확성 제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언급

- 영국도 테스트 결과에 대해 덴마크와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오스트리아는 현행 원조형태 구분이 실제와는 달리 뒤쳐져 있어 재분류 작

업이 매우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년도 작업반회의에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분류 안 확정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이에 각 국은 신규원조형태 구분 안 마련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스웨덴 및 캐나다는 추가적인 테스트에 참여의사를 밝힘
- 한국은 아직 DAC 비회원국이지만 가입을 준비하며 통계 부문에서의 DAC 기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국 역시 신규 원조형태 구분 안에 대한 원칙적으로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단, 타 공여국들의 테스트 결과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물자지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구분항목이 없는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하위 항목의 요소들이 혼합되어진 형태가 있을 수 있어 항목의 정의 및 분류 가이드라인에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일본과 독일은 신규 원조형태 분류안의 도입은 중요성은 인정하나 급격한 시스템 변화를 필요로 할 것임을 지적하며 과거 자료들에 대한 문제 및 국내 시스템 및 절차의 문제 등 행

정적인 부담이 클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프랑스도 일부 항목의 분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스위스도 너무 세부적인 구분은 적용이 어려움을 언급

- 2월 회의에 이어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수정된 구분 안은 아직 각 항목들에 대한 정의작업이 남아있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해당 테스트 팀에서 설명자료 작성과 함께 조정해 나가게 될 것임을 언급하고 특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독일, 일본, 프랑스에 대해 테스트 팀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현행 구분 안이 최근의 정책 이슈들을 위한 분석을 지원할 수 없어서 새로운 구분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통합하고 너무 큰 사업들의 경우 세분화하여 정책분석에 알맞도록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원조형태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언급
-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는 수정된 분류 안을 테스트 하는데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실적을 기준으로 신규 원조형태 구분 안 테스트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은 사무국에 6월 말 이전 연락하기로 하였고, 보완된 구분 초안이 완성된 후에 2008년 1사분기 중 비공식 회의에서 해당 제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음. 2009년 실적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신규 원조형태 구분안의 프로젝트는 기존 분류의 투자프로젝트(수원국 내 유형자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를 의미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의가 테스크 팀의 초안을 통해 정리될 예정임

## 5. 원조성과요약양식(Result at a glance template)

- 사무국은 베트남에서의 영국의 예시를 통한 원조성과 요약양식을 설명하였음. 본 양식은 MDG, 투입자원현황, 파리선언 원조효과성지표 성과, 수원국 분야별 총 자원 현황 및 투입 계획, 분야별 외부 원조자금 등의 요약표를 포함하고 있음. 해당 자료는 원조흐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별 성과중심의 현황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의 원조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언급
- 오스트리아는 투입자원현황 부분에 총 외채 규모 자료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캐나다는 최근의 ODA 실적이 부채탕감으로 인해 해당 수원국에 대한 실질 원조공여액이 증가한 것으로 왜곡된 해석이 가능함을 지적하였음. 이에 사무국은 형태를 변경하기 보다는 주석 처리 등을 통해 최근의 부채탕감 증가 등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외채 규모 자료 추가의 가능성 여부는 확인 후 반

영하기로 답변

## 6. 예산지원(Budget Support)

- 사무국은 베트남에 대한 일반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9개의 공여국이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각기 정책 마커를 다르게 해석하여 실적보고를 하였음을 예시로 들어 일반예산지원 및 섹터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마커 적용여부에 대한 일관된 기준적용 필요성을 언급
- 각 회원국들은 특정한 분야를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일반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정책마커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그룹과 일반예산지원과 섹터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정책마커를 보고하고 있는 그룹으로 나뉘었음. 공통적으로 단일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이에 사무국은 현재로서 공여국들마다 내부 정치적 요구 등의 이유로 일반예산지원에 대한 정책마커 적용여부 관련 국제적 비교 가능한 기준을 가지기 힘든 상황임을 인정하고 관심 있는 회원국들과 해당 이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토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7. 다자기구에 대한, 다자기구를 통한, 다자기구에 의한 원조실적 보고

- 사무국은 보다 정확한 다자기구관련, 특히

UN 기구들 원조실적에 대한 UN과 DAC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회원국들의 건별통계(CRS) 보고 시 원조수행채널코드를 사용해 줄 것을 촉구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다자를 통한 원조실적에 대해 지역이나 분야 중 한 가지가 정해진 (earmarked) 사업인 경우 다자간지원이 아닌 양자간 지원으로 보고하고 순수한(core) 다자 기구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만 다자간 지원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밝힘
- EC는 UN ODA 실적통계의 개선을 위한 UN과의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사무국은 타 회원국들의 참여도 환영함을 언급

※ 한국은 2006년도 ODA 실적 보고 시 지역이나 분야 등이 명시적인 KOICA의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실적을 양자간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건별통계의 원조수행채널 코드를 활용하여 양자간 및 다자간으로 보고되는 모든 흐름은 분석이 가능할 것임

## 8. DAC 통계작성지침 Annex2 업데이트

### 가. 국제기구, INGO, PPP, Network 업데이트

- BSEC (Organis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에 대한 지원은 78%

의 비율로 ODA 계상이 가능하고, EBRD-TRWB (Trust Fund for the Western Balkans) 와 MDRP (Multi-Country Demobilis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에 대한 지원은 전액 ODA 계상 가능한 국제기구로 원안 통과됨

- INGO 중 International Alert, 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WTC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re)에 대한 지원은 ODA 계상 가능, Search for Common Ground 는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 통과됨
- PPP는 GAID (Global Alliance for ICT and Development), SAS (Small Arms Survey), UNITAID가 ODA 계상 가능해 졌으며, Network에서는 GDN (Global Development Network)이 신규로 ODA 계상 가능한 리스트에 포함되었음

※ UNITAID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빈곤퇴치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나. UN 평화유지활동 ODA 계상비율

- UN PKO 에 대한 ODA 계상비율은 7%임. ODA 계상 대상이 되는 UN평화유지활동 지

역은 콩고(민),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라이베리아, 수단, 레바논, 서부사하라, 그루지아, 코소보, 에티오피아, 동티모르 등 총 11개 지역임. Truce Supervision, 인도/파키스탄, 사이프러스, UNDOF 등은 순수 군사목적이거나 수원국 리스트 외 지역으로 ODA 계상에서 제외됨

- 또한 계상 가능한 활동에는 인도적지원, DDR, 국내이주민 복귀 및 재통합작업, 성평등 관련이슈, 개발협력 조정, 인권, 아동보호, 민간지뢰관련활동, 선거지원, 커뮤니케이션 및 대국민홍보, 민간경찰부문, 법치 및 사법시스템 지원 등이 포함됨

#### 다. UN평화유지기금(PBF)의 ODA 적합성

- 2006년도에 이루어진 PBF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ODA 목적에 부합되는 데에만 쓰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된 것임을 인정하여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해당 실적을 전액 계상하되, 특정 목적을 명시한 지원이므로 양자간으로 계상하도록 함

※ 한국은 2006년 PBF에 3백만불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 ODA 확정통계 보고 시 해당 실적의 누락 없이 양자간 지원으로 전액 계상하여야 함

- ODA 창구와 Non-ODA 창구를 구분할지 여부에 관하여 뉴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당 논의에서 PBF가 단일한 다자기금으로 남게 결정된다면 ODA 계상 비율은 2008년 작업반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됨

#### 라. IFFIm과 AMCs 에 대한 지원

- IFFIm과 AMCs 에 대한 지원도 ODA 계상 가능하도록 원안 통과되었으며 해당 기구들에 대한 지원의 특성 상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ODA 계상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구들에 대해서 주석을 통해 주의사항을 명시하기로 함

- 한편, 57차 작업반회의에서 제안되었던 ODA 계상가능 국제기구 리스트 전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사무국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나 다시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일본 Mr Shoji의 주도로 스위스, 캐나다가 작업그룹으로 함께 재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보고함. 검토 기준은 해당 기구의 명칭과 임무확인 그리고 계상가능 기구 결정기준(임무, 회원국, 연간예산규모) 등의 검토임. OAU 및 AU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ODA 계상비율 설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재검토 결과는 2008년 6월 작업반회의에서 승인에 부쳐지게 됨

## 9. 파리선언의 정의 및 측정방법

- 오스트리아와 호주의 파리선언 지표 이행결과 보고의 문제제기와 관련, 회원국들은 파리지표 관련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행결과 설문조사의 시기적 문제점 및 월별 환율적용, 개념정의의 명확성 부족과 해석의 일관성 부재 문제를 언급
- 스웨덴은 파리선언의 지표는 수원국의 발전계획 수립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여국과의 상호 책임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일본은 프로그램 접근방식(PBA)에 대한 확실적 개념정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을 언급
- 덴마크는 용어정의의 문제를 강조하며 파리선언에서 원조조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Budget Support)뿐만 아니라 다른 원조형태들도 중요한 만큼 예산지원에 대한 정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독일은 설문조사가 ODA 예비통계와 확정통계가 나오는 중간 시점에 이루어져서 관련 통계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적 낭비와 자료의 신뢰성 저하를 가져왔음을 언급
- 2006년도에 실시된 파리선언 이행설문 조사

시에 수원국 현지로부터 어려움을 보고 받은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등이 있었고 관련 내용을 본부로 전달 받지 못했던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영국, 일본 등이 있었음. 전자 그룹의 국가들은 본부 차원에서 성과 보고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음을 피력

- 사무국은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분석자료 작성에 사의를 표명하고 해당 내용이 차기 파리선언 이행에 관한 Joint Venture 회의에서 논의될 것임을 설명

※ 2006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자료에서 한국은 34개국 중 3개국에서 전체 ODA 중 4%에 해당하는 지원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았는데 10개 항목 중 기술협력 관련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표들에서 공여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치 달성(baseline)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음

([www.oecd.org/dac/effectiveness/monitoring](http://www.oecd.org/dac/effectiveness/monitoring))

및 별첨자료 참조)

## 10. 분쟁, 평화 및 치안관련 지출

- 사무국은 지금까지 종합한 각국의 관련 보고 사례 외에 추가적인 사례 취합과 부분적인 수정작업을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임을 보고함. 추가적으로 사례



를 제공한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사의를 표명하였음

## 11. Rio 마커 업데이트

- Rio 마커에 대한 테스트 보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해당 마커에 대한 보고를 지속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건별통계 보고서에서 마커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 각 국은 건별통계에서 해당 마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에 공감하였으며 덴마크는 년 1회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간 개별실적자료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이에 EC는 기본적으로 CRS 원조목적코드를 바탕으로 자동생성한 뒤에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해당되지 않는 실적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음을 설명함. 네덜란드 역시 덴마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

※ 한국은 2005년 통계까지는 집계통계만 보고하여 해당 마커에 대한 실적을 별도 보고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 통합보고체제로 ODA 실적을 보고하면서 최초로 건별통계를 보고하게 되므로 관련 마커에 대한 자료작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2.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회원국들은 CDM Board에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 Units)을 신청할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무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받음

- 일본은 관련 프로젝트 정보와 CER의 ODA 계상 처리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함. CDM 관련 ODA프로젝트에서 CER을 신청할 경우 그 만큼 ODA 계상 실적을 차감하기로 되어있으나 일본은 해당 사업에서 CER을 시장가격을 주고 구매한 경우이므로 ODA 계상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3. 부채 보고 개선 추진 경과 및 계획

- 사무국은 ODA 부채에 대한 자료 집계작업을 재개하였으며 개별적인 회원국과의 확인을 통해 세계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개도국의 총 부채 규모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2003년과 2004년의 자료의 차이들을 해결할 계획임을 보고

## 14. CRS 원조목적코드 변경안

### 가. 거버넌스

- GOVNET은 지난 5년간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실적이 300% 정도 증가할 만큼 중요성이 커져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CRS 원조목적코드의 15000번 대의 코드들은 민주화, 반부패 및 이주 등의 이슈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원조목적코드의 추가, 거버넌스 마커의 도입 등을 통해서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증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함
- 이와 관련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많은 하위 코드들의 생성은 실질적으로 해당 코드들에 대한 실적보고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단순하고 실용적인 측면의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마커의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 의장은 무역을 위한 원조실적 집계도 5년 전 논의되었을 때 DAC 외부통계시스템을 생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가 결국 다시 OECD의 건별통계시스템으로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모니터

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에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GOVNET 테스트 팀은 2008년 작업반회의의 검토를 위해 보완된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통계작업반 사무국 외에 회원국 중 EC,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등이 함께 참여하기로 함

### 나. 무역을 위한 개발원조(Aid for Trade)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도국의 무역참여 및 무역을 통한 개발 역량 강화가 이슈가 되었고 이후 도하 라운드에서는 WTO와 OECD가 공동으로 해당 이슈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여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 TCBDB(Trade Capacity Building DB)를 통해 집계된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음. 최근 DAC의 무역위원회 및 WTO/OECD TCBDB 작업그룹의 공동회의에서 CRS 건별통계를 통해 무역관련 원조 실적을 집계하도록 합의하였음. 이를 통해 2008년도부터 2007년도 실적에 대한 TCBDB 별도 보고는 없어지게 됨
- CRS 통계를 통한 무역관련 실적 집계를 위해 원조목적코드 중 33110 하위에 3316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와 33162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를

추가하고, 무역개발 마커를 도입하며, 51000 일반예산지원 하위에 51020 무역관련 조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

- 회원국들은 원조목적코드 추가에는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마커 도입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지지를 보류한 국가들이 있었으며, 무역관련 예산 지원을 무역분야 하위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지원 하위에 두는 것으로 하였음

- 2007년 실적에 대해서는 무역관련 원조실적을 CRS 건별통계를 통해서 산출해야 하는 상황인바 서면으로 후속 제안 승인을 진행하기로 함

※ 한국은 2005년도부터 제네바 대표부의 요청에 따라 KOICA에서 TCB 실적자료를 DAC 및 WTO 에 제출하고 있으며 별도 보고가 필요 없는 2007년도 실적부터는 건별통계를 통해서 해당 실적이 보고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가 필요함

#### 다. 전염성질병

- MDG에 명시된 말라리아와 결핵과 관련된 지원 실적 모니터링을 위해 원조목적코드 중 12250 하위에 12262 말라리아 컨트롤 12263 결핵 컨트롤 코드를 추가하는 데에는 합의하

였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250의 설명에 성전염병을 제외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함. 한편, 아동보건 부분의 실적 추적을 위해 사업설명부분에 “Child Health” 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회의적 의견이 있었으나 권고사항으로 우선적 시행 후 1년 뒤 다시 검토하기로 함

#### 15. UNAIDS

- UNAIDS는 매년 5월 G8 보고를 위해 분기별 실적자료를 통해 전년도 지출실적과 향후 계획된 지원계획내용을 CRS 건별통계에서 얻고자 희망함을 보고함

- 회원국들은 요청한 자료에 대해 분기별로 또한 5월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HIV/AIDS 코드를 예방과 치료로 나누는 것은 유용할 것으로 보았으며 좀 더 진전된 관련 제안은 향후 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 16. 원조수행 채널코드(Channel of delivery codes)

- 네덜란드는 DAC 통계작성지침의 Annex 2와 CRS 통계작성지침의 Annex 6 에 차이를 조정하여 통합통계보고체계의 원조수행 채널코드를 단일화 하고 해당 코드를 6자리 코드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

- 개별코드를 부여하는 것과 제안과 같이 코드 자체를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한국 역시 하나의 국제기구 리스트를 만드는 데에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단, 이미 합의 된 바 있는 통합보고체계 상의 코드 리스트를 기초로 신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코드 자체의 변경 및 코드 자리수의 변경은 신중히 결정해야할 입장임을 밝힘. 이에 단일 리스트 통합은 추진하되 제안된 코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기존 CRS++ 지침의 코드리스트를 기초로 활용하기로 함
- 본 논의는 공식회의 이후 13일(수) 워크샵에서 재논의되었으며 한국의 요청에 따라 코드리스트 단일화에 따른 CRS++ 지침 중 해당 리스트의 변경사항은 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 별도 공지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

## 17. 집계통계와 건별통계의 통합 (Convergence)

- 사무국은 통합보고체계(CRS++)의 테스트 단계에서 실적산출 단계로의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구체적 논의는 13일 워크샵으로 대체하기로 함
- 13일 워크샵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은

이미 통합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6년도 실적 자료도 통합보고형식으로 보고예정임을 밝힘

- 덴마크, 호주, 스페인 등은 2006년도에 통합 보고체계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은 부분적으로 추진 및 준비 중임을 밝힘. 뉴질랜드, 노르웨이, EC, 독일, 네덜란드, 한국은 통합작업을 추진 중이며 2006년 실적에 대해서 CRS++ 형태로 보고 예정임을 표명함

※ 한국은 2006년도 실적에 대한 ODA 확정통계 보고 시 통합보고체계(CRS++)에 따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임. KOICA는 2월 회의 시 2005년도 KOICA의 실적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했음. 수출입은행에서도 CRS++ 보고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기관간 협력 하에 2006년도 실적부터 통합보고체계 적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18. 사적흐름(Private Flows) 보고 개선

- NGO 및 기타 민간기구에 대한, NGO 및 기타 민간기구를 통한 원조흐름
-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민간부문의 원조자금 흐름에 대한 보고개선을 위해 각국의 해당 실적을 재검토 해 줄 것과 해당 실적에 대한 각국

의 보고자료 취합 방식 및 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원조확대(Scaling Up) 및 원조체계섹션
- IT 조정 및 지원섹션

## 19. 그리스의 간접교육비용 관련 통계작성지침 변경 요청안 검토

- 그리스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간접교육비용의 비율을 ODA로 계상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덴마크, 뉴질랜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회원국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통계작성지침을 변경하는 데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안은 통과되지 않았음

## 20. OECD DAC 통계사무국 조직개편안 보고

- 통계사무국은 원조의 새로운 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고 4개의 섹션으로 재조정하였음을 보고

통계 및 모니터링부

- 실적집계섹션
- 통계정책 및 Non-DAC 공여국 통계섹션

## 21. OECD.STAT 시스템 관련 피드백 및 개선안

- 사무국은 회원국들로부터 전달받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OECD.STAT ([www.oecd.org/dac/stats/idsonline](http://www.oecd.org/dac/stats/idsonline)) 통계시스템 개선작업에 대해 보고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사무국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

## 22. 2008년 회의 일정

- 59차 통계작업반 공식회의는 2008년 6월 12(화)-13(수) 양일 간 열리며 비공식 회의는 2008년 2월이나 3월 중 열릴 예정임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